

「등유파동」이 오고 있다

金 乾 治

(석유협회 홍보실장)

월동기 등유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올겨울에 소비자들은 「추운 겨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최근 국내등유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동사태의 여파로 등유의 국제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다가 물량확보마저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한 이번 겨울의 등유수급파동은 거의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동기의 등유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조정명령을 발동, 각 정유사별로 월별 책임확보물량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10월 16일부터는 일반가정에 유조차를 통한 유통배달을 금지하고 주유소등 유통판매점에 판매기록부를 비치, 개인별로 판매물량을 관리토록 하는등 강력한 소비억제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정유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유수급파동을 우려하는 것은 우선 폭발적인 등유소비 급증세 때문이다.

금년 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등유소비는 전년동기대

비 110.9%가 증가했으며, 9월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198.6%(2,144천배럴)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등유소비의 급증은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상업부문등 비생산부문의 석유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종래 취사·보조난방용 정도로 쓰이던 등유가 가정용 기름보일러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유가체계도 등유수요증가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유가격의 상대적인 저가유지 결과 현재 등유와 정유의 가격차이가 1당 겨우 4원에 불과해 난방용 경유의 상당부문이 등유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등유공급은 정유공장에서 원유정제시 5~6% 생산에 불과해 결국 해마다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월동기중에도 등유수요의 52%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할 실정이나, 최근 중동상태로 쿠웨이트로부터의 제품수출이 중단되고 있는데다 韓國, 日本등의 월동기 등유수입소요의 급증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등유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등유가격은 상가

월동기 등유수급현황

(단위: 천배럴)

		1988. 10~		1989. 10~		* 1990. 10~	
		1989. 3	증가율 (%)	1990. 3	증가율 (%)	1991. 3	증가율 (%)
수 요		8,384	37.9	15,326	82.8	25,354	65.4
공 급	생 산	7,790	44.7	8,202	5.3	11,829	44.2
	수 입 (수입비중%)	1,708 (20.4)	37.4	6,798 (44.4)	298.0	13,287 (52.4)	95.5

* 1990년 월동기 수급계획상의 물량임.

국제 등유가격의 추이

(단위: \$/B)

	1990. 3	1990. 6	1990. 8	1990. 9	1990. 10. 12. 현재
日本 C & F	24.74	20.50	38.75	50.10	73.00
싱가포르(현물가격)	23.48	21.88	36.82	48.23	69.75
FOB 평균	21.65	18.90	35.72	47.04	70.00

포르 현물가격기준으로 지난 6월의 배럴당 21.88달러에서 최근에는 70달러선까지 급등함으로써 무려 3배 이상이나 올랐다. 등유는 중동지역의 군사용 수요증가 및 각국의 수출감소로 원유에 비해 물량부족이 더 심각하고 가격상승폭도 크다.

등유는 용도에 따라 취사·난방용, 동력용, 공업원료용, 항공용(제트유)등으로 쓰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등유가격의 상대적 저가유지로 주로 가정난방용으로 쓰고 있다. 지난 '89년 월동기 등유수요 증가율 8.28%중 가정보일러용의 증가율이 67.0%를 차지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보통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공기나 함정연료로 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급기름을 단순히 가격이 싼 연유로 해서 마구 펄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유를 난방용으로 쓰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낭비이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등유·경유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유수입물량의 증대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기회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월동기 등유수입소요물량(13,287천배럴)을 전부 소비자가 등유대신 경유로 사용할 경우 약 2억6천만달러의 외화절감이 가능하다.

등유는 주로 겨울철에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상의 불안을 안고 있다. 등유는 국제가격의 계절편차가 커서 성수기에 수입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됨으로써 시설 및 수송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상 겨울철 등유수요의 충족만을 위한 상업증류시설

등유·경유 수입가격 추이(日本 C & F)

(단위: \$/B)

	1990. 3	1990. 6	1990. 8	1990. 9	1990. 10
등 유	24.74	20.50	38.75	50.10	73.00
경 유	24.91	21.66	36.60	44.50	53.25
가 격 차 이 (등유·경유)	△0.17	△1.16	2.15	5.6	19.5

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국내수요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급시 仁川港 하역능력의 한계와 경인간 교통체증의 심화도 공급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폭발적인 등유수요가 멈추지 않는한 이번 겨울철의 등유수급과동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등유과동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난방용 등유수요의 경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유는 등유에 비해 열효율이 6%정도 높다. 그러나 소비자의 자발적인 소비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등유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경유와의 가격차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日本이나 臺灣등 주변국가에 비해 등유 소비자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등유가격의 폭등과 공급감소에 따라 국내 등유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조절이 필요하다. 중동사태 이후 美國, 日本, 臺灣등은 이미 국내 유통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바로알고 바로쓰면 기름절약 효율증대